

해방전후의 현대문학사 연구*

- 『신문학사』(임화), 『조선신문학사조사』(백철), 『현대조선
문학사』(박영희)에 사용된 ‘양식’·‘사조’·‘사상’ 개념을
중심으로

강 용 훈**

차 례

- | | |
|--|--|
| 1. 서론 | 4. ‘현대 조선문학’의 포괄적 규정과
사상성의 문제 |
| 2. ‘과도기’라는 시대 규정과 ‘양식’
개념의 함의(含意) | 5. ‘양식’·‘사조’·‘사상’ 개념의 함의
(含意): 시민문화의 탐색에서 네이
션의 창안으로 |
| 3. 조선문학의 근/현대 구분과 구조
(主潮)로서의 사조(思潮) | |

국문초록

해방 전후 발표된 한국현대문학사 연구는 한국 문학사의 시대를 규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한 현대문학사의 변화 양상을 사유하기 위해 ‘양식’, ‘사조’, ‘사상’과 같은 개념들을 정립했다. 이를 통해 문학사 연구자들은 전통과 당대(當代)의 관계, 제국 일본을 경유하여 들어온 서구문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M0001)

**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HK연구교수

화와 식민지 조선문화의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한편으로 그 작업은 해방 전후의 현대문학사 연구자들이 1930년대 후반의 과시즘적 분위기와 대면했던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문학사 서술 과정에서 현대문학사 연구자들의 우선적으로 관심을 드러낸 시기는 개항 이후 서구 문명이 유입되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이었다. 임화는 『신문학사』에서 이 시기를 ‘과도기’로 규정하며 ‘구시대와 신시대’, ‘전통과 외래’의 경계를 탐색하려 했다. ‘과도기’라는 말의 이러한 사용법은 ‘양식’ 개념과도 맞닿아 있었다. 임화는 ‘양식’ 개념을 통해 시민적 문화가 조선 사회에 어떻게 뿌리내리게 되었는가를 근원적으로 살펴보려 했다.

이러한 임화의 문제의식은 해방 직후 집필된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와 박영희의 『현대조선문학사』에는 상당 부분 계승되지 않았다. 백철은 임화가 사용했던 ‘과도기’, ‘양식’과 같은 개념을 ‘개화기’, ‘사조’ 등의 용어로 대체한다. 임화는 시민적 문화가 조선사회에 형성될 수 있었던 기반을 탐색하려한 반면, 백철은 조선사회에 유입된 외래사조의 다층적 내용을 정리하고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백철은 ‘근대’와 ‘현대’를 구분한 후 조선문학의 현대는 프롤레타리아운동이 형성되었던 1923년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이 시기부터 백철은 조선 신문학에 세계사조와 흐름을 같이 하는 주조(主潮)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주조’가 상실된 1932,33년을 전후로 세계 각국의 문단에 불안과 위기의식이 짙게 된 양태를 서술하고 있다. 『조선신문학사조사』의 의의는 백철이 ‘현대’라고 지칭한 시기, 즉 1930년부터 해방 직전까지의 문단 상황을 밀도 있게 증언하고 있는 데 있다.

반면 박영희의 경우에는 ‘근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채 ‘조선문학의 현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영희는 ‘조선문학의 현대’를 규정지을 때 조선어문을 사용하게 된 양태와 민족적 수난의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조선어와 민족의식을 부각시켰기에 박영희는 임

화 및 백철과는 달리 세계사조 및 일본문단이 조선문학에 미친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하고 있지 않다. 그 대신 박영희는 문학사 서술 과정에서 ‘사상성’이라는 용어를 부각시킨다. 박영희에게 ‘사상성’은 곧 조선민족의 정치적 각성과 맞물려 싹트게 된 민족 감정을 의미했다. 박영희의 『현대조선문학사』는 민족의 위기/극복 과정에서 형성되는 동류의 민족감정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대신, ‘네이션(nation)’ 서사로 수렴되지 않는 다층적 영역을 문학사 서술에서 배제하고 있다.

주제어 : 신문학사, 조선신문학사조사, 현대조선문학사, 임화, 백철, 박영희, 현대문학사, 사조, 양식, 사상성, 네이션

1. 서론

식민지 시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문학사(文學史)’를 집필한다는 것은 한 시기의 문학과 관련된 연구를 총체적으로 재인식하는 활동으로 이해되어 왔다. 임화의 『신문학사』¹⁾를 서구추수적 태도로 비판하며 근대문학의 기점을 영·정조 시대로 끌어올렸던 김윤식·김현의 『한국문학사』²⁾가 보여줬듯이, 문학사 연구는 해당 시기 문학 연구의 근본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던 것이다.

서구에서도 미학을 역사적으로 사유하는 방식은 예술론이 근본적으로 재편되었던 18세기말에서 19세기 초 생겨났다. 오타베 다네히사가 잘 정리한 것처럼 18세기 중엽 이후 새롭게 정립된 예술관은 ‘자율성’의 이념에 바탕을 둔 근대적 인간관의 확립과 맞물려 있다. 주어진 범례의 권위에 의거하지 않는 ‘독창성’, 외적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예술 작품의 ‘독

1) 임화, 『개설 신문학사』, 『임화문학예술전집 2 문학사』, 소명출판, 2009.

2)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립성'은 근대적 예술관의 근간이 되었던 것이다.³⁾

예술을 사유하는 방식이 근대적으로 재편되었던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는 서구의 미학에서 '역사적 사유 방식'이 형성된 시기이기도 했다. 이 시기 독일 낭만주의의 대표적 이론가였던 슐레겔 형제는 『유럽 문학사 강의』, 『고대 및 근대문학사』와 『낭만적 문학사』를 집필하며 역사적 관점에서 문학/예술을 사유하려 시도했다. 그들은 '아시아'와 대비되는 유럽의 '문화적 특성'을 규정한 후 '유럽문학'이라는 범주 하에 고대문학부터 근대문학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16세기 초의 종교개혁 이후 유럽의 분단이 정점에 달했다고 말하며 유럽 문화의 주변에 속해 있던 독일에게서 유럽 문화의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을 찾고 있다.⁴⁾ 슐레겔 형제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듯 근대 미학 및 예술 이론에서 '역사'의 문제가 부각된 과정은 '유럽 중심주의' 및 '국가주의'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⁵⁾

한국의 경우 '예술'(혹은 '문학')과 역사의 관계는 1920년대 본격적으로 고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구의 선구적인 업적은 안확의 『조선문학사』⁶⁾에서 선취된 바 있으며, 1920년대 말 김기진, 박종화 등의 비평가들은 당대(當代) 문학의 변화 양상을 역사적 관점에서 정리하려 시도하기

3) 그러나 '예술'의 자립화 과정은 '예술'과 연관되어 있던 여타의 영역을 자기 바깥으로 배제함으로써 확립된 것이기도 했다. 오타베 다네히사는 근대적 '예술' 개념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근대적 소유권 사상, 근대적 국가론, 유럽 중심주의가 근대적 예술론을 탄생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미쳤음을 지적하고 있다. 오타베 다네히사, 『예술의 역설-근대미학의 성립』, 돌베개, 2011, 283~296쪽 참조.

4) 오타베 다네히사, 앞의 책, 264~277쪽.

5) 오타베 다네히사, 앞의 책, 234쪽. 이는 예술론에 역사적 사유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슐레겔 형제가 아시아와 대비되는 유럽 문화의 우월성을 부각시키며 독일을 유럽 세계의 재건자로 상정한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오타베 다네히사는 슐레겔 형제의 역사적 사고가 유럽 중심주의와 국민주의를 유착시킨 편파적 견해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이 편파성을 안에서부터 해체할 수 있는 경향도 보인다"고 주장한다.

6) 안확, 『조선문학사』, 『한국문학사연구총서 1권』, 국학자료원 편, 1994.

도 했다.⁷⁾ 이러한 시도들은 이후 임화의 『신문학사』 서술 작업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식민지 시기의 (조선)문학을 역사적 관점에서 사유하려 했던 시도들은 서구의 문학사 서술 작업보다 중층적인 문제들과 대면해야 했다. 조선문학의 역사를 서술하는 작업은 유럽에 대응되는 ‘아시아’ 혹은 ‘동양’의 문화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없었다. 중국 및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문화적·정치적 위상 차이는 ‘동양’이라는 범주로 포괄하기 어려울 만큼 컸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그렇기에 당대(當代)의 조선문학을 역사적 관점에서 사유하려 했던 논자들은 한편으로는 중국과 교류했던 한문학적 전통과 당대(當代) 문학의 관계에 대해,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 일본을 경유하여 들어온 서구 문화와 식민지 조선문화의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만 했다. 이 논문이 주목하려고 하는 부분 역시 그러한 되물음의 지점에 놓여 있다. 그러나 그러한 되물음의 과정은 한편으로 조선이 처해 있던 식민지적 조건을 재인식하는 과정을 동반하고 있었으며, 그 인식은 민족국가 건설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해방 직후에 이르면 변모하기 시작한다.

이 논문은 해방 전후 발표된 현대문학사 연구가 문학사의 시대를 규정했던 방식, 문학사의 변화 양상을 사유하기 위해 사용했던 개념들을 비교·분석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문학사를 서술했던 논자들이 문학사 서술 과정에서 어떠한 질문들을 제기했는지를 탐색하려 한다. 이 논문이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① 『신문학사』⁸⁾ 서술 과정에서 임화가 제시했던 ‘과도기’라는 시대 규정과 ‘양식’ 개념, ② 『조선신문학사조사』⁹⁾에서 백철이 주되게 사용하고 있는 ‘사조’ 개념, ③ 『현대 조

7) 김기진, 「10년간 조선문에 변천 과정」 『조선일보』, 1929.1.1.~2.2 및 박종화, 「대전 이후의 조선의 문예운동」, 『동아일보』, 1929.1.1~1.12.

8) 임화, 『임화문학예술전집 2. 문학사』, 소명출판, 2009.

9)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 수선사, 1948.

_____, 『조선신문학사조사: 현대편』, 백양당, 1949.

선문학사』¹⁰⁾에서 박영희가 부각시키고 있는 ‘현대’라는 규정과 ‘사상’ 개념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해방 전후 발표된 이들의 문학사 연구를 개별적으로 접근하려 시도했고, 그 결과 이와 관련한 풍성한 연구 성과가 산출되었다.¹¹⁾ 또한 현대문학사 연구를 통시적으로 분석한 최근의 연구들은 임화의 문학사 서술부터 2000년대까지의 문학사 연구의 경과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였고 그 연구들이 전제로 삼고 있는 정치적 무의식을 비판하는 성과를 낳았다.¹²⁾ 그러나 그 연구들은 개별 문학사 저작에만 집

_____,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80.

10) 박영희, 『현대 조선문학사 (외)』, 범우, 2008.

11) 특히 2000년대를 전후로 임화의 문학사 연구와 관련해서는 다채로운 연구 성과가 산출되었다. 다음의 연구들은 임화의 연구를 비주체적 태도로 단정했던 기존의 견해들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신두원, 『계급문학, 민족문학, 세계문학 - 임화의 경우』,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연구소, 2002.

하정일, 『이식·근대·탈식민』, 『임화문학의 재인식』, 문학과사상연구회, 소명, 2004.

박진영, 『임화의 문학사론과 신문학사 서술』, 앞의 책.

이도연, 『『신문학사』와 『한국문학사』의 서술 방법론 비교 연구』, 『한국문화연구』 20,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11.

장문석, 『임화의 참고문헌: 『개설 신문학사』에 나타난 임화의 ‘학술적 글쓰기’의 성격 규명을 위한 관건』, 『관악어문연구』 3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9.

백철의 『조선문학사조사』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이 의미있는 성과를 낳았다. 전용호,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 연구』, 『우리어문연구』 23, 우리어문학회, 2004.

_____, 『백철의 『신문학사조사』 개작에 관한 연구』, 『어문논집』 51, 민족어문학회, 2005.

배개화, 『신문학사조사의 방법과 전략』, 『한국현대문학연구』 31, 한국현대문학학회, 2010.

12) 대표적으로 다음의 연구들을 들 수 있다.

허병식,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의 정치적 무의식』, 『한국근대문학연구』 21, 한국근대문학학회, 2010.

최병구, 『한국문학사 서술의 경과: 제도와 이념에의 결박과 성찰: 현대문학사 서술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56, 민족문학사학회, 2014.

중했거나, 혹은 식민지 시기부터 2000년대까지의 문학사 연구를 모두 포괄하여 분석하려 했기에, 현대문학사 연구가 생성되고 정립된 ‘해방전후’라는 시기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이 시기의 논자들이 현대문학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개념들에 대한 비교 고찰 또한 충분하게 수행하지 않았다. 문학사 연구를 통시적으로 분석한 논문들이 박영희가 해방 직후 서술했고 1950년대 후반 『사상계』에 연재되었던 『현대조선문학사』를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점 또한 문제로 볼 수 있다.¹³⁾

이 논문은 임화, 백철, 박영희 등 식민지 시기의 대표적 비평가들이 조선현대문학의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 제시했던 개념들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해방전후 현대문학사 서술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Problematic)이 변해 간 양상을 탐색하려고 한다. 그 양상이 해방 직후 ‘네이션(nation)의 형성’을 사유한 방식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이 논문의 최종적 목적이 될 것이다.

2. ‘과도기’라는 시대 규정과 ‘양식’ 개념의 함의(含意)

문학사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들은 문예사조를 통해 한국의 근대문학사를 설명하는 방식은 한국문학사 서술의 오래된 관습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¹⁴⁾ 그렇다면 언제부터 ‘문예사조’가 한국의 근대 문학사를 서술

13) 박영희의 『현대조선문학사』는 백철이 『신문학사조사』 하권을 내기 전인 1948년 무렵 이미 완성이 되어 있었지만 출판되지 못했다. 이후 박영희의 문학사는 1958년 『사상계』에 연재되며 비로소 세상에 공개되었다. 그렇기에 『현대조선문학사』는 해방 직후의 현대문학사 서술과 1950년대의 현대문학사 서술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 최근 발간된 『문학사 이후의 문학사』의 서문 격인 『문학의 산포, 혹은 문학사의 고독』에서 권보드래는 사조 중심으로 문학사를 서술하는 방식을 근대 문학사 서술의 오래된 ‘습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해방 이후 한국현대문학사를

하는 오래된 ‘습관’으로 자리매김 되었을까?

1920년대 후반 발표된 김기진의 『10년간 조선문예의 변천 과정』은 근대 문예사조의 유입 과정과 조선 신문예운동의 변화 과정을 본격적으로 연결시킨 대표적 논문이다. 김기진에 따르면, 1910년부터 1919년 근대 문예사조의 세례를 받아 신문예운동이 생성된 시기이고 1919년부터 23년까지는 다층적 문예사조가 수입되어 ‘신문예운동’이 혼란을 겪던 시기였다. 반면 1923년부터 28년까지의 5년간은 무산계급 문예운동이 조직되던 시기로 규정된다. 1910~1920년대 조선 문예운동의 형성사를 정리한 김기진의 비평은 이후 김태준의 『조선소설사』 서술에 영향을 미쳤으며 임화의 『신문학사』 서술 역시 이 담론의 자장 하에 있었다.¹⁵⁾

임화의 『신문학사』 서술의 첫 작업에 해당하는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이 발표된 1935년, 조선문단은 일종의 위기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이러한 위기 의식은 계급문학 운동을 주도했던 KAPF가 해산되며 사상통제의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던 정세에 기인한 것이었다. ‘조선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위기의식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인식되었으며 당대의 여러 논자들은 시조와 고전에 대한 관심을 통해 조선적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려 했다. 임화는 이러한 움직임을 감상적 회고로 규정하여 비판한 후 “고소설과 한말의 잡다한 신소설, 또 국초, 춘원을 거쳐 20년대 문학에 이르는 역역한 문학적 발전의 계열”을 탐색하

서술했던 백철은 “근대사조의 변천에 의하여 한국의 신문학이 성장되고 발달”되어 왔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서 백철이 말하고 있는 근대사조는 유럽의 근대문화로부터 시작하여 세계로 전파된 사상적 조류를 일컫는다. ‘자연주의’, ‘낭만주의’와 같은 ‘문예사조’ 역시 그러한 근대사조의 대표적 예로 볼 수 있다. 권보드래, 『문학의 산포 혹은 문학의 고독』, 『문학사 이후의 문학사』, 푸른역사, 2013.

- 15) 김기진의 비평이 김태준의 『조선소설사』에 미친 영향은 강용훈, 『한국 근대 문학사 연구의 형성 과정 - 당대 문학을 규정하는 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9, 우리어문학회, 2014.5 참조. 김태준의 『조선소설사』가 임화의 『신문학사』 서술에 미친 영향은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서울출판사, 2003, 128~131쪽 참조.

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¹⁶⁾

궁극적으로 임화는 문학사의 변화 과정을 ‘발전’과 ‘진화’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김기진의 『10년간 조선문예의 변천 과정』 역시 유사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김기진의 논문은 문예사조가 유입되었던 1919년부터 1923년까지의 혼란기와 무산계급 문예운동이 조직되었던 1923년부터 28년까지의 기간 사이의 연관성을 세밀하게 탐색하고 있지 않다. 임화는 이광수·자연주의·신경향파로 대표되는 개별 국면의 문학사적 의의를 더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화는 문학사 스스로가 역사의 도정 일반에서 “자기 발전의 변증법”을 드러내고 있음을 부각시킨다. 임화의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에서 ‘문학사’는 번역된 사조들의 총합으로 인식되지도 않으며 ‘계급문학’에 의해 대표되는 것으로 서술되지도 않는다. 임화는 ‘문학사’를 발전의 법칙에 따라 스스로 운동하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학사 인식은 임화가 조선 근대문학의 단계를 규정하는 방식에서도 잘 드러난다. 임화는 1차대전을 전후로 조선문학에 나타난 변화를 서술하며 이 시기를 임화는 “신경향파 문학 탄생의 진통기”로 인식하는 동시에, “역사적 전형기=과도기”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임화가 뭉뚱그려 사용하고 있는 ‘과도기’, ‘전형기’와 같은 용어는 문학사의 개별적 국면들이 문학사적 발전으로 나아가는 한 ‘과정’임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4년 뒤인 1939년의 문학사 서술 작업¹⁷⁾에서 임화는 ‘과도기’를 ‘전형기’ 혹은 ‘전환기’와 같은 말들과 구별한 후 문학사의 특

16) 임화, 『역사적 반성예의 요망』, 『임화 문학예술전집 2-문학사』, 소명출판, 2009, 364~365쪽.

17) 임화는 1939년부터 1941년까지 『조선일보』와 『인문평론』에 문학사를 연재했다. 연재된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설 신문학사』, 『조선일보』, 1939.9.2.~10.31; 『신문학사』, 『조선일보』, 1939.12.8~12.27; 『개설 조선신문학사』, 『인문평론』, 1940.11~1941.4. 이 글에서는 이를 총칭해서 『신문학사』로 부르려고 한다.

정 시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자리매김한다. 『개설 신문학사』에서 임화는 <신문학의 태생>을 논하는 작업을, ‘과도기’라는 말의 의미를 규정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과도기’, ‘개화기’, ‘전형기’를 별다른 구분 없이 사용했던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의 논의와 변별된다.

임화는 ‘과도기’를 “어느 하나의 시대가 몰락하고 다른 하나의 시대가 발흥하는 중간의 시기를 가리켜 일컫는 말”로 규정한다. 임화는 이 시기를 “신구의 두 시대가 서로 투쟁하여 승패”를 결정짓는 때였으며, “양자의 승패가 모두 확정적이지 아니었던 때”로 보고 있다.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에서는 1920년대 유입된 자연주의 문학의 특성을 서술할 때에도 사용되었던 ‘과도기’라는 말이 『개설 신문학사』에 와서는 특정한 시대를 규정하는 어휘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신문학사에서 쓰는 과도기라는 말은 육당의 신시와 춘원의 새 소설이 나오기 이전 그리고 한문과 구시대(이조적인)의 언문문학이 지배권을 상실한 중간의 시대를 지칭하는 좁은 의미에 한정된다. 이 시기엔 자연히 구(舊)문학이 이제 전래의 신용과 위엄을 상실한 대신 신문학은 당연히 가져야 할 새 위(威)를 채 갖추지 못하여 일종 반구반신(半舊半新)의 문학으로 충전(充填)되었다. (임화, 『개설 신문학사』, 앞의 책, 134쪽)

임화는 ‘과도기’를 한문학과 언문문학이 지배권을 상실한 시기이자 춘원과 육당의 문학이 나오기 이전 시대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이 시기, 즉 갑오경장(1894)을 전후로 한 시기는 소설 장르를 통사적으로 서술한 김태준의 『조선소설사』에서 주로 다루어진 반면, 임화의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1935)에서는 이 시기에 해당하는 작가로 이인직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 후 임화는 갑오경장을 전후로 한 시기를 ‘과도기’로 규정하며 이 시기를 재조명하고 있다, 이는 ‘계몽운동의 시대’ 혹은 ‘개화기’로 이 시기를 지칭한 김태준의 명명법과도 구별된다.

임화는 내지 문학사, 즉 일본 문학사에서는 이 시기를 “개화기의 문학”으로, 중국문학사에서는 “문학 혁명의 시대”로 부르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있다. 임화는 ‘개화기’라는 명칭이 “문명개화에 주된 역할을 한 서구 외래문화”를 지나치게 중시하고 있으며, “문학혁명”이라는 표현은 “새 문학의 탄생과 구 문화의 몰락”에 중요한 역할을 미친 외래문화의 역할을 몰각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 대신 임화는 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한 ‘과도기’라는 용어를 통해 구문학(舊文學)과 신문학(新文學), 전통문화와 외래문화가 교섭했던 중층적 양상을 포착하려 했던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서 임화가 사용하고 있는 ‘과도기’라는 말 자체도 1920년대 새롭게 생성된 어휘라는 점이다. 1922년 편술된 『현대신어석의』¹⁸⁾에서 ‘과도’는 “사물 변이의 상태, 즉 불확실·불안정의 상태”를 말하는 어휘로, ‘과도기’는 “이와 같은 상태에 처한 시기”를 일컫는 말로 해설되고 있다. 또한 1925년 『개벽』 57호에 실린 기사 『최근 조선에 유행하는 신술어(新術語)』(1925.3)에서도 ‘과도기’는 최근 조선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며 ‘정돈되지 않고 무질서한 사회적 분위기를 일컫는 말’로 소개되고 있다. 임화는 1920년대부터 새롭게 통용되기 시작한 어휘(=신어(新語))를, 조선문학사의 특정 시대를 지칭하는 개념어로 설정하려 했던 것이다. 즉 임화를 통해 ‘과도기’는 ‘불확실·불안정의 상태’라는 일상적 의미 뿐 아니라 ‘구시대와 신시대’, ‘전통과 외래’의 경계를 표상하는 의미 또한 부여받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양식’ 개념이다. 임화는 『개설 신문학사』에서 ‘신소설’을 “현대소설(혹은 우리가 부르는 그냥 소설)과 고대소설(혹은 구소설) 사이를 점유하고 있는 문학사적 과도기의 소설”이자 “과도기적 양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화 스스로도 언급하고 있듯이 소설 일반을 소설·신소설·구소설로 구분하는 방식은 김태준의 『조선소설사』에서 빌어온 것으로 이러한 구분법은 당대에 통용되고 있던

18) 한림과학원 편, 『한국 근대 신어 사전』, 선인, 2010.

것이다. 임화는 이러한 ‘신소설’을 ‘과도기’라는 시대와 연결시키는 동시에, 특정한 ‘양식’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⁹⁾

그렇다면 여기에서 임화가 사용하고 있는 ‘양식’ 개념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을까? 임화는 『개설 신문학사』의 연재 도중 발표한 『조선문학 연구의 일 과제 - 신문학사의 방법론』에서 신문학사 서술의 방법이 될 6개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대상>, <토대>, <환경>, <전통>, <양식>, <정신>이 바로 그것이다. 이 6개의 항목 중 선행 연구들이 가장 많이 집중한 것은 <환경>과 <전통> 부분²⁰⁾이며 이에 비한다면 <양식> 부분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다. 그러나 임화가 “양식의 설정은 비평의 최후의 과제이면서 문학사의 최초의 과제”였다고 말했던 것처럼 ‘양식’은 임화의 문학사 서술 논의에서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임화가 사용하고 있는 ‘양식’ 개념은 우선 ‘시대’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모든 역사 연구가 다 그러한 것처럼 문예사(文藝史)에 있어서도 시대란 것이 단위가 된다. 시대란 것이 연구의 단위가 될 때에는 또한 자연히 개개의 작품, 개개의 작가는 각 시대 가운데로 편입되며 그들의 개성

19) 이는 김영민이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김영민은 임화가 ‘신소설’을 특정한 양식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사용했음을 지적하며 ‘신소설’이라는 말이 “문학사 연구 과정 속에서 정착된 고유한 용어”라는 점을 강조한다.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솔출판사, 2003, 132~134쪽.

20) 3장 <환경>은 신문학의 생성과 발전에 있어 영향을 미친 외국문학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 장에서 임화는 훗날 논쟁이 된 “신문학은 서구문학의 이식과 모방 가운데서 자라났다”라는 선언을 하게 된다. 김윤식·김현에 의해 ‘이식문학론’이자 ‘전통단절론’으로 비판받게 된 결정적 내용을 담은 부분이다. 그러나, 임화는 문화의식 과정이 “일정 한도로 축적된 자기 문화의 유산”과 교섭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더 나아가 “이식 문화를 섭취하면서 고유문화는 또한 자기의 구래(舊來)의 자태를 변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디아 리우의 논법을 빌려와 말하자면 임화는 주인언어와 손님언어가 교섭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언어횡단적 실천’에 주목했던 것이다. 리디아 리우, 『언어횡단적 실천』, 소명출판, 2005.

이란 것은 또한 시대의 특색이란 가운데로 해소되지 아니할 수 없다.

(중략)

문예학에서는 이러한 것은 형식이라고 부르기를 피하여, 예하면 고전주의, 혹은 낭만주의라 하듯이 그것은 문학에 있어서는 시대적 양식이란 개념으로 불려온 것으로 문학사는 이러한 몇 개의 특색 있는 양식을 발견하는 게 언제나 큰 임무다.

(임화, 『신문학사의 방법』, 『문학의 논리』, 소명출판, 2009, 659~660쪽)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임화에게 ‘양식’은 한 시대를 관통하는 고유한 문학적 형식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양식’은 김기진 등이 사용했던 ‘사조’ 개념과 흡사하다고도 볼 수 있다. 임화가 ‘고전주의’, ‘낭만주의’를 ‘시대적 양식’의 예로 들고 있는 것에서도 이 점이 확인된다. 그러나 임화는 ‘양식’을 “시대정신이 자기를 표현하는 형식”으로 다시금 규정지며, “양식의 역사를 뚫고 들어가 정신의 역사”를 발견하는 것이 “과학적 문학과 속류 문학과와의 분기점”이라고 말한다.

‘양식’ 개념을 ‘시대정신’의 틀에서 논의하는 일은 임화에게 복수의 사조들을 관통하는 ‘보편적 동일성’을 탐색하는 작업으로 이해되었다. 임화는 양식에 있어서 “거대한 전 시대를 포섭할 수 있는 보편적 특징”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커다란 시대의 단일한 정신”을 문제삼을 수 있다고 말한다.

양식에 있어서도 실로 거대한 전(全) 시대를 포섭할 수 있는 보편적 특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것은 하필 외국의 예를 구할 필요가 없이 우리 신문학사를 보아도 명백하다. 신문학사 이전과 이후를 구별하는 양식상의 차이는 실로 명확하다. 자유시, 근대소설, 우선 이런 장르의 형성이 하나의 양식사적 문제다.

우리가 커다란 시대의 단일한 정신을 문제삼는다는 것은 결국 커다란 시대의 단일한 양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임화, 앞의 글, 663쪽)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임화가 문제 삼고 있는 ‘거대한 전 시대’, 혹은 ‘커다란 시대’라는 것은 곧 일반적 의미의 ‘근대’에 다름 아니다. 이는 임화가 ‘자유시’와 ‘근대소설’, 즉 근대적 양식 일반을 ‘커다란 시대의 단일한 양식’의 예로 들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궁극적으로 임화는 근대적 양식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며 “커다란 시대의 단일한 정신”, 즉 ‘근대정신’ 자체를 탐색하려 한 것이다. 이는 임화가 같은 글에서 “르네상스 이후부터 현대까지를 일관하는 정신”, “조선에 있어서 근대정신의 생성과 발전”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임화가 KAPF 운동의 형성기인 1920년대가 아니라 근대문학이 생성되기 시작한 19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문학사를 서술하게 된 원인 또한 여기에 있다. 임화가 ‘신소설’이라는 과도기적 양식의 운명을 서술하면서 근본적으로 탐색하려고 한 것은 ‘근대의 (시민) 정신’이었다. 즉 “외래문화의 영향 하에 성장(生長)한 근대 시민적인 문화의식”(『개설 신문학사』, 135쪽)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개항 이후의 조선’에 뿌리내리게 되었는가를, 임화는 근원적으로 살펴보려 했던 것이다.

이는 임화 『신문학사』의 상당 부분이 2장 <신문학사의 태반>을 서술하는 데 맞추어져 있던 것과도 연관된다. 특히 2장의 2절 중 <신문화의 이식과 발전> 부분은 3장 <신문학의 태생> 중 <신소설의 출현과 유행>을 분석한 부분을 제외하면 『신문학사』에서 양적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임화는 조선에서 신교육이 발흥한 상황, 그리고 조선의 저널리즘이 성장한 과정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화는 시민적 문화가 조선에 어떻게 정착되었는지를 탐색하려 한 것이다.

3. 조선문학의 근/현대 구분과 주조(主潮)로서의 사조(思潮)

바로 그 지점, 임화가 ‘단일한 근대적 양식’과 ‘시민적 문화의식’을 근원적으로 탐색하고 있는 자리에, 1920년대 복수의 근대 사조를 번역하며 조선문학의 기대지평을 확장했던 박영회를 소환해올 필요가 있다. 임화가 신문학사를 서술하기 시작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 박영회는 『전쟁과 조선문학』(『인문평론』, 1939.10)²¹⁾을 발표한다. 이 글에서 박영회는 지나사변, 즉 1938년 일본이 중국을 전면적으로 침략한 이후 ‘전쟁문학’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말한다. 박영회는 이 시기를 역사의 전환기로 규정하며 전쟁문학을, “신계단의 문학운동”으로 규정한다. 박영희에게 조선문학의 새로운 단계는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갈망하는 ‘일본정신’을 예술화하고 문학화하는 작업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1930년대 후반 문학사 서술에서 임화가 근대양식 및 근대정신의 형성 문제를 일관되게 탐색하려고 한 것은 박영희와 같이 ‘일본정신’을 강조한 당대의 담론들로부터 거리를 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일본정신’이 역사의 새로운 단계를 표상하는 지점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사회 분위기, 임화는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시민문화의 종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임화에게 민족과 혈통을 강조하는 전체주의의 위협은 근대문학, 더 나아가 서구문화 자체를 형성했던 ‘시민적 양식’이 파괴된 징후로 이해되었던 것이다.²²⁾

이러한 정세에서 (박영희와 달리) ‘신문학사 서술’이라는 작업을 부여 잡게 된 임화의 내면풍경은 『역사·문화·문학-혹은 시대성이란 것의 일 각서』(『동아일보, 1939.2.18~3.3)에 잘 드러나 있다. 임화는 “미래와

21) 박영희, 『전쟁과 조선문학』, 『박영희 전집 4권』, 374~379쪽.

22) 임화, 『시민문화의 종언』(『매일신보』, 1940.1.6.), 『임화문학예술전집 5』, 소명출판, 2009, 187~189쪽.

현재를 과거와 더불어 일관하게 이해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절박한 필요가 역사에의 의식을 환기한다”²³⁾라는 말로 이 글의 앞머리를 열어젖힌다. 이때 임화가 말하는 ‘역사에의 의식’이란 결국 ‘과거-현재-미래’의 긴밀한 내적 연관성을 메타적인 관점에서 투시할 수 있는 의식에 다름 아니다. 그 의식은 앞의 장에서 분석했듯 임화의 『조선 신문학사론 서설』에서 집약적으로 서술되고 있었다.

임화는 1930년대 후반의 시점에 그러한 관점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음을, 즉 “재래에 통용되어오던 현실 이해의 방법”이 “일체로 통용이 정지되는 순간”을 경험하며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다.²⁴⁾ 혼돈의 시기, 박영희가 ‘일본정신’을 새로운 역사적 단계로 결론 내렸다면, 임화는 성급한 대답을 유보하며 ‘양식’과 ‘과도기’와 같은 개념을 통해 조선 ‘신문학사’의 형성 과정을 탐색하고 있다. 즉, 임화는 ‘신문학사’ 서술을 지탱하고 있던 역사적 내러티브 그 자체가 어떻게 정립될 수 있었는지를 근본적으로 되물으려고 했던 것이다. 신문학사를 서술하는 작업은, 곧 ‘시민적 문화, 혹은 근대 문화 양식으로 이행해간 역사에서 필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임화 스스로에게 던지는 과정이었다.

그렇다면 해방 이후 한국문학사 서술 과정에 임화의 개념들은 어떻게 수용되었을까. 이 글에서는 해방 이후 최초의 문학사 서술 작업이었던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1947~1949)를 예로 그 질문에 대한 개략적 대답을 탐색하려고 한다. 백철은 『조선신문학사조사』는 임화의 『개설 신문학사』에 영향을 받았음을 직접 밝히고 있지만, 임화의 ‘양식’과 ‘과

23) 임화, 『역사·문화·문학-혹은 시대성이란 것의 일 각서』, 『문학의 논리』, 575쪽.

24) 다음 인용문에 나타난 질문들에서 이러한 임화의 혼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필연적인 것을 실현하는 것도 인간의 힘이라 할 제, 만일 그것을 현실화하려는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역사 진행이 마치 필연성을 중단하는 것과 같은 코스를 수(受)할 제, 필연성이란 어떻게 되는가?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경우엔 사실상에 있어 필연성이 중단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필연성의 행방은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앞의 글, 585쪽.

도기' 개념을 수용하고 있지는 않다. 백철은 그 개념들을 '사조'와 '개화기' 개념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대체 작업은 임화가 끝까지 견지하려고 했던 '시민정신'이라는 화두로부터 백철이 자유로워졌음을 의미한다.

백철은 “근대적인 사조가 조선에 들어온 근세”를 분수령으로 해서 그 이전 문학을 고대문학이라 하고 그 뒤의 문학을 '신사조의 문학' 혹은 '신문학'이라고 통칭하고 있다. 여기에서 '근대사조'는 “세계역사의 물결이 조선에 밀려든 것”(10쪽)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조선의 신문학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킨 핵심적 동력으로 설정되고 있다. 이때 '근대사조'는 조선에 유입된 외래적 요소이자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서양에서 형성된 사상적 흐름 일반을 지칭하고 있으며 '자유주의'는 근대사조를 대표하는 사유체계로 규정된다.

백철은 『조선신문학사조사』의 첫 장인 「개국과 개화사조의 유행」에서 이러한 '근대사조'를 '개화'라는 말과 연결시키고 있다. 백철은 근대문명을 따르려고 했던 조선의 움직임을 '개화'로 총칭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개화'라는 말은 근대문명이 일본을 매개로 조선에 수용된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

近代文明을 따르는 것을 當時 開化...라고 불렀다. 當時에 있어서 그 近代文明은 實際的으로 그때 明治維新을 통하여 一日先進한 日本에서 再移植한 境遇가 많은 것이 事實이었다. 그것은 當時의 政治的 現實엔 地理的인 距離가 重大한 意味를 갖고 있는 때이니만치 中國과 露西亞에 對하여 新興한 日本이 開國에 對한 發言을 強하게 또는 優先的으로 要求하고 그 權利를 第一着으로 獲得한 것은 當然한 致勢였으며 그때 先驅的으로 近代文明의 意義를 覺醒한 先進 人테리젠차-들이 舊來로 事大 해은 中國보다도 日本의 新興勢力에 依託하여 開化를 倣하게 된 것은 더욱 當然한 致勢였을 것이다. 開化! 라는 이름부터가 日本의 開化期의 開化……에서 襲用될 것임에 틀림이 없는듯하다.

백철은 ‘개화사조’의 형성을 ‘개국(開國)’, 즉 강화도 조약의 체결과 연결시키며 ‘개국’을 “암흑기 뒤에 온 이 땅의 근대문명사적인 아침”이라고 서술하고 있다.²⁵⁾ 백철은 ‘개화’라는 말 자체가 일본에서 전승된 것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용어의 사용법 자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있지 않다. 앞의 장에서 분석한 것처럼 입화는 ‘개화’ 혹은 ‘개화기’라는 말 대신 ‘과도기’라는 어휘를 사용하며 신문학의 이식 과정에 작용한 중층적 요인들을 탐색한 바 있다. 반면 백철의 경우에는 신문학 형성 과정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채 ‘개화’로 지칭된 근대 사조의 유입을 특권화시켜 강조하고 있다.

물론 백철도 입화와 유사하게 근대사조의 유입은 근세 조선이라는 역사적 현실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개국’과 ‘개화’라는 말에는 “조선을 근대적인 외국과 같이 자립시키고 강화시킨다는 주체적인 의미”(32) 또한 들어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사조가 유입되는 과정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백철은 조선이 서구에 비해서 “부자연한 환경”이었다는 점, 서구에 비해 짧은 시간에 근대 사조를 수용했기에 혼란이 초래됐다는 점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입화의 『신문학사』에서 『신문학의 태반』에 해당하는 내용의 상당수가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에서 생략된 것과 맞닿아 있다. 입화는 『신문학의 태반』 부분을 <물질적 배경>과 <정신적 배경>으로 나누

25) 그 과정에서 백철은 스즈키 다케오(鈴木武雄)의 『조선의 경제』에 실린 “이 강화 개국은 바야흐로 동양에서의 개국운동의 최후의 완성이며, 또 근대 자본주의의 세계적 정복의 쇄사슬에 또 하나의 테를 가한 것이다”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스즈키 다케오는 1928년 경성제대에 부임해서 조선 연구를 시작했고 1941년 『朝鮮の經濟』 등을 발간하며 식민지 체제의 정당성을 탐색하려 했다. 스즈키는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서구에 의해 근대적 공업화가 억제되었던 아시아를 근대화시키는 과정”으로 정당화하고 있으며 ‘대동아공영권’ 내에서 조선이 가지는 특수성을 강조하려 했다. 이상 스즈키 타케오의 조선 연구와 관련된 내용은 송병권, 『1940년대 스즈키 다케오의 식민지조선 정치경제 인식』, 『민족문화연구』 3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2, 406쪽 및 415쪽 참조.

어 서술하고 있다. 이 중 임화가 <정신적 준비>에서 설명하고 있는 ‘금압 하의 실학(實學)’, ‘자주의 정신과 개화 사상’, ‘신문화의 이식과 발전’과 같은 내용의 상당 부분이 『조선신문학사조사』에는 생략되어 있다.²⁶⁾ 임화의 경우 ‘신문화의 이식과 발전’ 부분에서 신교육이 발흥한 것, 그리고 조선의 저널리즘이 성장한 것을 상당한 비중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말했듯 임화의 『신문학사』 서술이 시민적 문화가 조선에 형성되어온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과 맞닿아 있다.

반면 백철은 이러한 임화의 문제의식을 생략한 대신 신소설에 반영되어 있는 개화사조의 내용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개화와 자주 독립’, ‘신교육사상의 선전’, ‘신도덕관과 인습의 비판’, ‘미신타파와 현실의 폭로’ 등이 백철이 부각시킨 개화사조의 내용적 특성인 것이다.²⁷⁾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는 ‘사조’ 개념을 폭넓게 규정하며 조선 신문학의 변천 과정을 역동적으로 서술해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지적했듯이 『조선신문학사조사』에서 백철은 ‘근대사조’를 ‘자연주의’, ‘낭만주의’와 같은 ‘문예사조’로 국한시켜 이해하지 않고 있다.²⁸⁾ 백철은 근대사조를 대표하는 것으로 ‘자유주의’를 들고 있으며 근대사조가 일본을 경유하여 조선에 유

26) <물질적 배경>에 해당하는 부분을 서술할 때 임화는 백남운 등이 주장한 ‘아세아적 정체성’ 논의를 차용하며 조선의 근대화 과정이 굴절된 형태로 전개된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아세아적 정체성’과 관련된 논의는 백철 역시 임화의 『신문학사』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다.

27) 배개화 역시 백철이 ‘양식’ 대신 ‘사조’ 개념을 선택함으로써 임화의 문제의식으로부터 멀어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배개화의 논의는 ‘사조’ 개념을 부각 시킴으로써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가 임화의 문학사 서술과 달라지게 되는 지점을 세밀하게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을 남긴다. 배개화, 『신문학사조사의 방법과 전략』, 앞의 책.

28) 전용호,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 연구』, 앞의 책, 176쪽.

입되는 상황을 서술할 때에는 ‘개화사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초기의 신문학』 부분, 즉 3.1 운동 직후인 1920년대 초반의 문단 상황을 정리할 때에만 백철은 ‘낭만주의’, ‘자연주의’와 같은 문예사조에 초점을 맞춰 서술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문학사의 새로운 갈림길로 규정되고 있는 ‘신경향파 문학’의 등장을 이야기할 때에 백철은 이를 “세계적인 사조요 한국의 일반 사조”로 규정하고 있다. 『조선신문학사조사현대편』의 후기에서 백철은 1920년대 초반 유입된 ‘자연주의문학’까지를 근대적인 문학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세계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자연주의’ 문학이 19세기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백철은 ‘신경향파’에 이르러서야 조선문학이 20세기적인 세계문학의 흐름과 함께 갈 수 있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에 ‘신경향파’ 이후의 문학을 백철은 ‘현대문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 백철은 ‘근대’를 ‘중세’와 ‘현대’ 사이에 위치한 시대로 바라본 반면, ‘현대’는 당대(當代), 즉 현재와 같은 시기로 생각하고 있었다.

『조선신문학사조사』는 ‘현대문학’ 시기 중 1924, 25년부터 1933, 34년까지의 10년간을 ‘프롤레타리아 문예사조’가 문단을 재패한 시기로 서술하고 있다. 물론 백철은 이 시기에 민족주의적 문학자와 프롤레타리아 문학자 간의 대립이 있었으며 코뮤니즘과 아나키즘 사이의 논쟁도 있었음을 언급한다. 그럼에도 백철은 이 시대의 주된 조류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이었다고 보고 있다. 문학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현실운동적인 측면에서도 무산계급의 해방을 주장하는 사회운동은 “세계적인 사조요 조선의 일반 사조”(16쪽)였던 것이다.

즉 백철은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출현에 이르러 비로소 조선 신문학에 주조(主潮)가 형성되었으며 그 주조가 세계사조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 했다고 본 것이다. 백철이 그 시대를 이전 시기와 구분하여 ‘현대’라고 지칭한 원인 또한 여기에 있다. ‘주조(主潮)’를 중심에 두고 문학사를 서

술하는 방식은 『조선신문학사조사』 ‘현대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백철은 1932, 33년을 전후로 세계 각국의 문단을 업습해 온 것은 ‘불안사조’였음을 지적하며 이 사조가 도래한 원인을 세계대공황과 파시즘의 대두에서 찾고 있다. 반면 1936년부터 1941년까지, 즉 KAPF가 해산된 이후부터 세계 2차대전이 발발한 직후 시기의 신문학에 대해서는 ‘주조(主潮)의 상실’로 규정짓고 있다.

이러한 백철의 서술 전략은 “형식과 내용의 결합에 대한 고찰”이 결여된 채 “사상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문학사를 기술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²⁹⁾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러한 서술 전략 때문에 백철은 1920년대 초반부터 30년대 초반까지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조선문단의 주된 조류가 된 상황, 그리고 30년대 이후 불안 사조와 위기의식이 팽배하게 된 양상을 효과적으로 서술할 수 있었다. 특히 1940년대 방향을 상실해버린 조선문단의 분위기를 서술한 <막다른 골목의 문학> 부분은 이 장의 첫머리에서 제시한 임화의 혼란스러운 내면 풍경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백철의 『조선문예사조사』가 1930년대 중반 이후의 문학사를 서술한 방식은 비슷한 시기 집필된 박영희의 문학사 서술과 비교하면 확연히 부각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작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4. ‘현대 조선문학’의 포괄적 규정과 사상성의 문제

백철의 『신문학사조사』는 조연현의 『한국현대문학사』와 함께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문학사 연구를 대표하는 저서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백철이 1958년 『사상계』에서 밝히고 있듯이 박영희의 『현대조선문학사』는 백철이 『신문학사조사현대편』을 내기 전인 1948년 무렵 이미

29) 배개화, 앞의 글, 251~252쪽.

완성이 되어 있었다. 6.25 직전 출판되려다가 기회를 놓친 박영희의 문학사는 1958년에 이르러서야 『사상계』에 연재된다. 박영희의 문학사가 발표된 시기는 조연현이 『한국현대문학사』를 『현대문학』(1955.6~1956.12)에 연재하던 시기와도 맞물려 있다. 그렇기에 박영희의 저작은 해방 이후의 대표적 문학사인 백철의 저서와 조연현의 저서를 재평가하는 매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희의 문학사 서술은 <현대 조선문학의 규정>이라는 장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박영희는 “조선말과 글을 가지고 문학적 형상에서 조선민족의 생활과 정서와 이상이 나타나 있는 것”을, 현대의 조선문학으로 규정한다. 이때 부각되고 있는 것은 ‘조선말과 글’이다. 박영희는 조선문학사의 과정에서 현대를 규정할 때에도 조선어의 문제를 핵심에 가져다놓는다.

그러면 먼저 조선문학사의 전과정에서 현대의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을 나는 서기 1900년 이후 40년 동안을 현대라고 규정하여 놓았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으니 첫째는 한문학에서 완전히 벗어나와 조선말과 글을 가지고 또한 문학적인 구체적 형상을 통하여 신문학 운동을 일으킨 때가 1900년 이후의 일이니 현대문학의 출발점은 여기서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문체계에서의 조선어에 대한 강조는 곧 민족적 수난을 부각시키는 언술과 연결되고 있다. 박영희는 조선문학사의 현대를 규정하는 두 번째 규정으로 40년 가까이 있었던 제국주의적 침략을 들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곧 박영희로 하여금 조선의 현대문학이 민족적 의식에 고립되어 개별적으로 발전하기” 불가능했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족적 의식을 강조하는 서술 체계는 일본을 경유해 유입된 근대 사조의 영향을 부각시키지 않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박영희는 일본문단과 조선문단의 교류는 “세계 사조를 전해주는 중계적인 중요성이 있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예사조’의 유입을 부각시키지 않는 대신, 박영희 문학사 서술 과정에서 ‘사상성’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박영희는 사상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상성의 구체적 사실은 무엇이었던가.

첫째로는 권선징악의 재비판이요, 둘째는 개성 해방과 자유를 위한 투쟁이요, 셋째는 민족해방을 위한 혁명의식의 고양이요, 넷째로는 계급 의식을 위한 투쟁이었다.

이러한 규정 중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세 번째 항인 “민족해방을 위한 혁명의식의 고양”이다. 박영희는 ‘사상성’을 정의하는 절의 첫머리부터 조선의 현대문학이 “조선민족의 정치적 각성”과 함께 생겨나 ‘민족해방운동’과 병행하여 성장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 현대문학이 사상성을 내포하게 된 근본적 동인으로 민족적 의식/감정을 들고 있는 것이다. 박영희는 1920년대 중반부터 생겨난 계급운동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조선민족의 해방운동은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맑스주의의 동정자(同情者)를 얻었던 것”이라고 말한다. 조선의 민족문학과 계급문학이 모두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항쟁이었음을 부각시키는 언술에서 박영희는 조선의 계급운동이 민족적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의 정치적 각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사상성을 규정했기에 박영희의 문학사 서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1) 첫 번째, 여타의 문학사 저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소설’ 시기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 박영희는 ‘신소설’ 시대를 본론이 아닌 서론에 배치하며 그 이유를 “조선문학의 현대적 성격을 더욱 명확하게”(44) 하기 위해서라고 밝힌다. 박영희는 ‘신소설’을 개화운동과 연결시키고 있지만 철학적으로 확실한 건설적 신념이 부족했으며 도덕면에

서도 권선징악의 이념을 그대로 답습한 한계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신소설’이 “현대 신문학에 이르는 교량의 임무”를 가졌다고 본 점에서 박영희는 임화, 백철의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그러나 박영희는 신소설과 현대문학이 문학 형태의 범주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앞의 저술들과 차이를 드러낸다. 신소설이 도입되던 시기의 물질적, 정신적 기반을 탐색하려 했던 임화의 문제의식, 근대 사조 유입이 지니는 중층적 의미를 분석하려 했던 백철의 문제의식은 박영희에게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 대신 박영희는 『현대 조선문학사』의 본론 1편 1장 『신문학 건설의 출발』의 서두에 “조선의 현대문학은 이광수(춘원)로부터 시작한다”라는 문장을 배치하고 있다. 신소설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보다는 이광수와 최남선이 조선문학을 건설한 공로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광수와 최남선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사의 기원을 서술하는 관습은 박영희의 『현대 조선문학사』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이광수와 최남선의 역할을 서술할 때 박영희는 ‘조선주의’라는 개념을 부각시킨다. 박영희에 따르면 조선주의를 “역사적으로 계몽적으로 나타낸 이가 육당”이면 이것을 “예술적으로 순문학적으로 나타낸 이는 춘원”인 것이다. 물론 박영희는 새로운 조선문학이 새로운 조선민족의 생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밝히며 ‘조선주의’를 조선의 전통적 사상 체계와 동일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무정』 등을 논할 때에도 박영희는 “민족적 이상 속에서 새로운 역사적 계단의 성격”(68쪽)이 나타났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조선 현대문학은 “결사적 민족운동이 전개되던 동일한 시기에 출발”(69쪽)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2) 두 번째로 박영희는 조선적 현실의 탐색을 보여준 양태에 초점을 맞춰 현대소설의 변화 양상을 논하고 있다. 자신이 직접 참여했던 동인지 문예 잡지를 논할 때에도 박영희는 이 잡지들이 청춘의 정열을 표출

하고 있지만, 그 정열 속에는 “인생을 탐구하며 생활의 진리를 찾으려는 욕구”(76쪽)가 들어 있음을 강조한다. 박영희는 동인지 시대 예술 작품의 경향을 낭만주의적 작품과 자연주의적 작품으로 분류하면서 양자에 “민족적 애수와 우울”이 들어 있다고 말한다. 박영희에 따르면 그러한 정서는 ‘조선적인 현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때 조선적 현실성은 곧 “조선민족의 고뇌”(84쪽)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박영희는 동인지가 중심을 이루던 1920년대 초반 문단의 분위기와 신경향파 문학이 태동되던 1923~24년의 시기를 단절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 박영희에게 1920년대 중반은 동인지 문학에 맹아적으로 드러나 있던 조선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발견이 더 확대된 시기로 인식된다. 최남선, 이광수부터 동인지 문학 시기까지를 다루었던 1편의 전체 제목이 <청춘 조선의 정열과 이상>이었고, 신경향파와 카프를 주로 다루는 2편의 제목이 <조선적 현실의 성장과 문예운동>이었던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3) 조선적 현실에 대한 강조는 박영희 스스로가 논객으로 참여했던 프롤레타리아운동의 ‘방향전환’ 담론을 서술하는 부분에도 두드러진다. 방향전환 담론에 대해 『현대 조선문학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박영희 스스로가 1920년대 중반 주장했던 내용과 배치된다.

프로문학의 정치적 방향전환이란 결국 계급적인 데서 전체성으로 가자는 뜻이 있고 혼자만 좋아하는 문학에서 민족적으로 감동할 수 있는 문학을 만들자는 것이니 이런 의미에서 <홍염>과 <낙동강>은 방향전환기를 대표할 수 있는 작품임에 틀림없었다. (박영희, 136쪽)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의 방향전환기에 있음을 말하는 조선의 사회성은 문예운동으로 하여금 어떠한 투쟁을 갖게 한 것인가? 또한 방

향전환기에 있는 조선사회의 현실성은 문예운동으로 하여금 어떻게 방향전환을 하게 한 것인가? 그것은 소위 계급의 자연생장적 현실로부터 목적의식에 이르게 한 것이니 문예운동에 있어서 현실을 인식하는 방법이 또한 그러하다. (박영희, 「문예운동의 방향전환」, 『조선지광』 1927.4)

1920년대 발표된 「문예운동의 방향전환」에서 박영희는 조선문단이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계급이 처한 자생적 현실에서 목적지향적인 계급의식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그렇기에 백철 역시 『신문학사조사 현대편』에서 당시의 방향전환담론에 정치편향적이고 공식주의적인 태도가 드러났다고 비판한 것이다. 방향전환론에 의해 부각된 프로문학의 목적의식성을 백철은 정치의식 및 계급의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박영희의 경우에는 프로문학의 방향전환을 계급적인 데에서 탈피해 ‘민족적 감동’으로 나아갔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박영희의 해석은 명백히도 자신이 내걸었던 방향전환담론과 배치되고 있다.

(4) KAPF 운동의 계급성을 부각시키지 않는 대신, 박영희는 1930년대 조선문학에 새로운 진로가 제시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박영희가 볼 때 1930년대 이후의 문학은 고정화된 창작방법과 유물사관적 방법을 거부하고 “선전성에서 감염성으로, 계급성에서 인생문제와 민족문제로, 유물적 세계에서 정신적 세계”로 발전해 온 것이다.

그렇기에 박영희는 「수난기의 조선문학」이라는 제목 하에 1930년대 조선문학의 특성을 서술하고 있지만, 이 시기 조선의 작가들이 공식적 정치 담론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인간형을 탐구했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박영희 문학사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인 동시에, 1930년대의 문학적 성과에 대한 충실한 정리로 고평되기도 했다.³⁰⁾

그러나 백철의 『신문학사조사』와 비교했을 때 박영희의 문학사 서술

30) 임규찬, 「재평가되어야 할 회월의 문학사 연구」, 『현대조선문학사(외)』, 범우사, 2008.

은 1930년대 세계 각국의 문단이 직면했던 불안 및 위기의 정서를 별다른 언급 없이 생략해버렸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백철은 1932, 33년을 전후로 세계경제공황이 찾아오며 과시증적 분위기가 세계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 만주사변을 전후로 변하고 있는 세계 정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가 불안사조와 지식인의 내면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그 갈등은 1937년 중일전쟁 이후 더 심화되었음을 분석한다.

반면 박영희는 세계 정세의 변화가 조선문단에 미친 영향을 세밀하게 탐색하지 않는 대신, 백철이 ‘복고사상’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언급했던 ‘역사소설의 유행’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박영희는 역사소설의 대두를 1930년대 이후 조선문단에 새롭게 제기된 현상으로 보고 있다. 박영희는 역사소설이 민족적 취미와 민족의식의 새로운 부면을 발견하려 했으며 “침체된 현대문학을 구출하려는 한 갈래의 길”(217쪽)을 제시했다고 평가한다. 궁극적으로 박영희는 역사소설이 역사적 인물 및 사상을 매개로 쇠퇴해가던 민족의식, 반항의식을 표현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역사소설에 초점을 맞추어 1930년대 문학사를 서술할 때 박영희가 강조했던 ‘민족의식’은 『현대조선문학사』를 관통하고 있는 문제들이기도 하다. 박영희는 ‘사상성’을 ‘민족적 각성’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이에 입각해 ‘동인지 시대의 예술작품’, ‘KAPF의 방향전환 담론’을 모두 ‘민족적 애수와 우울’, ‘민족적 감동’ 등의 민족정서와 연결시키고 있다. 박영희는 1941년 『문장』지가 폐간되고 조선어로 작품을 쓸 수 없게 된 상황을 언급하며 문학사 서술을 다음과 같이 끝맺는다.

『문장』지가 폐간된 것은 조선문(朝鮮文) 잡지 발행금지의 총독부 정책에서 원인한 것이니, 작가들은 누구나 조선문으로 작품을 쓸 수가 없었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학사에 올릴 성질의 것이 못된다.

제 2차 세계대전에 당면한 조선작가들은 그 가혹을 극(極)하여 가는

일본 제국주의의 철제(鐵製) 밑에서 오직 공포와 전율 속에서 장차 닥쳐 올 미지의 운명을 기다릴 뿐이었다. (228쪽)

이러한 구절은 『현대조선문학사』가 민족적 위기 및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부각시키는 서사 패턴에 의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방’이라는 운명을 이미 목도한 박영희에게는 『문장』 폐간을 전후로 전개되었던 조선 작가들의 다층적 고민 및 대일협력의 문제 등은 모두 문학사에 실릴 수 없는 영역으로 규정된 것이다. 이는 백철이 『조선신문학사조사』에서 이 시기 진행되었던 ‘만주 개척민소설’ 등의 생산소설, 그리고 자신의 ‘사실수리론’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것, 그리고 1941년 이후 조선문인들이 대일협력에 동원되어 ‘조선문인협회’를 결성한 점을 증언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박영희의 『조선문학사』는 민족의 위기/극복으로 대표되는 ‘네이션(nation)’ 서사에 수렴되지 않는 다층적 지점을 문학사 서술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5. ‘양식’·‘사조’·‘사상’ 개념의 함의(含意): 시민문화의 탐색에서 네이션의 창안으로

해방 전후 발표된 한국현대문학사 연구는 한편으로는 문학사의 시대를 규정하는 방식을 제시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학사의 변화 양상을 사유하기 위해 ‘양식’, ‘사조’, ‘사상’과 같은 개념들을 정립했다. 이를 통해 문학사 연구자들은 전통과 당대(當代)의 관계, 제국 일본을 경유하여 들어온 서구문화와 식민지 조선문화의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려 했다. 한편으로 그 작업은 해방 전후의 현대문학사 연구자들이 1930년대 후반의 과시증적 분위기와 대면했던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문학사 서술 과정에서 현대문학사 연구자들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드러낸 시기는 개항 이후 서구 문명이 유입되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이었다. 임화는 『신문학사』에서 이 시기를 ‘과도기’로 규정하며 신구의 두 시대가 서로 투쟁하고 있는 시기로 규정했다. 임화는 이러한 시기 규정을 통해 ‘구시대와 신시대’, ‘전통과 외래’의 경계를 표상하려 했다. ‘과도기’라는 말의 이러한 사용법은 ‘양식’ 개념과도 맞닿아 있었다. 임화는 ‘양식’ 개념을 통해 복수의 사조들을 관통하는 ‘보편적 동일성’을 탐색하려 했다. 그 동일성은 1930년대 후반 위기에 직면해 있던 ‘근대 시민적인 문화의식’에 다름 아니다. 임화는 『신문학사』에서 시민적 문화가 개항 이후의 조선 사회에 어떻게 뿌리내리게 되었는가를 근원적으로 살펴보려 한 것이다.

이러한 임화의 문제의식은 해방 직후 집필된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와 박영희의 『현대조선문학사』에는 상당 부분 계승되지 않았다. 백철은 임화가 사용했던 ‘과도기’, ‘양식’과 같은 개념을 ‘개화기’, ‘사조’ 등의 용어로 대체한다. 임화는 시민적 문화가 조선사회에 형성될 수 있었던 기반을 탐색하려한 반면, 백철은 조선사회에 유입된 외래사조의 다층적 내용을 정리하고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백철은 ‘근대’와 ‘현대’를 구분한 후 조선문학의 현대는 프롤레타리아운동이 형성되었던 1923년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이 시기부터 백철은 조선 신문학에 세계사조와 흐름을 같이 하는 주조(主潮)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주조’가 상실된 1932,33년을 전후로 세계 각국의 문단에 불안과 위기의식이 싹트게 된 양태를 서술하고 있다. 『조선신문학사조사』의 의의는 백철이 ‘현대’라고 지칭한 1930년부터 해방이후까지의 문단의 상황을 밀도 있게 증언하고 있는 데 있다.

반면 박영희의 경우에는 ‘근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채 ‘조선문학의 현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영희는 ‘조선문학의 현대’를 규정지을 때 조선어문을 사용하게 된 양태와 민족적 수난의 상황을 중

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조선어와 민족의식을 부각시켰기에 박영희는 입화 및 백철과는 달리 세계사조 및 일본문단이 조선문학에 미친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하고 있지 않다.

그 대신 박영희는 문학사 서술 과정에서 ‘사상성’이라는 용어를 부각시킨다. 박영희에게 ‘사상성’은 곧 조선민족의 정치적 각성과 맞물려 싹트게 된 민족 감정을 의미했다. 그렇기에 박영희는 현대문학사를 서술할 때에 ‘신소설’보다는 이광수와 최남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광수와 최남선의 작품을 ‘조선주의’와 연결시키고 있다. 또한 백철이 ‘조선 현대문학의 기원점’으로 규정한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의 형성 역시 ‘민족적 현실 탐색’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1930년대의 ‘역사소설’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정점에 달한다.

이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와 박영희의 『현대조선문학사』는 해방 직후 집필된 현대문학사 관련 저작이었지만, 해방의 전사(前事)에 해당하는 1930년대 중·후반의 문학사를 서술하는 두 논자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조선신문예사조사』는 1930년대 백철이 주창했던 ‘휴머니즘론’, ‘사실수리론’ 등에 의거하여 문학사를 서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시기 세계적으로 만연했던 불안사조와 위기의식, 그리고 조선문단이 이에 대처했던 방식들을 효과적으로 증언해내고 있었다. 반면 박영희의 『조선문학사』는 민족의 위기/극복 과정에서 형성되는 동류의 민족감정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대신, ‘네이션(nation)’ 서사로 수렴되지 않는 다층적 영역을 문학사 서술에서 배제하고 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오타베 다네히사의 논의와 비교해보면, 해방 전후 한국 현대문학사 서술 방식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다시금 성찰해 볼 수 있다. 오타베 다네히사가 분석한 것처럼 슬레겔 형제 등의 문학사 서술은 유럽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독일 민족을 그 우월한 문화의 계승자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유럽중심주의와 국가중심주의를 동시에 부각시킬 수 있었다. 반면 해방 이전 식민지 조선의 현대문학사 서술은

임화에게서 확인할 수 있듯 서양의 시민문화를 부각시키며 ‘동양’의 특수성을 부각시키는 담론과 거리를 유지했다. 이는 ‘동아 신질서’의 이념을 제시하며 일본국민과 식민지의 민중을 동시에 전시동원체제에 편입시키려 했던 제국 일본의 지배 담론³¹⁾과 거리를 두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임화의 문체의식은 백철과 박영희를 거치면서 조선민족(문학)의 위기극복과정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변모해갔다. 이는 해방 직후 벌어진 민족국가의 형성 과정이 현대문학사 서술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³²⁾ 슬레겔 형제처럼 유럽중심주의를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해방 직후 한국의 현대문학사 서술 역시 민족(국가)을 중심에 놓는 서술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해방 직후 집필된 백철과 박영희의 문학사 서술은 1950년대 중반부터 『현대문학』에 연재되기 시작한 조연현의 『한국현대문학사』, 1970년대의 대표적 문학사인 김윤식·김현의 『한국문학사』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³³⁾ 문학사 서술 과정에 나타난 백철과 박영희의 문체의식이 이후의 저작들에 어떻게 계승/단절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깊이 있게 분석하려고 한다.

31) 요네타니 마사후미, 『중일전쟁기의 천황제』, 『총력전하의 삶과 제도』, 소명출판, 2014, 300~301쪽.

32) 백철은 『조선신문학사조사현대편』의 마지막 장을 해방 직후의 시기를 서술하는데 할애하고 있기도 하다. 백철에게 해방 이후 조선의 역사는 “세계사의 화려한 각광을 받고 새로 무대 우에 등장한 것”으로 인지되고 있었으며 문학자들 역시 “정치영역에 있어서의 건국운동이 전면적인 전개”(404쪽)를 보게 된 물결에 함께 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백철은 민족국가(nation-state)의 형성 과정에 참여한 문학 단체들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대립하고 있었으며 특히 민족문학을 둘러싼 견해 차이를 가지고 있었음을 강조한다. 해방 이후의 민족국가 형성 과정을 둘러싼 논쟁에 문학 단체들이 각기 다른 양태로 개입하고 있었음을 백철은 주목하고 있었다.

33) 대표적 예로 조연현의 경우에도 백철처럼 조선문학의 근대와 현대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조연현은 백철과 달리 근/현대를 나누는 기점을 1930년대에 놓는다. 조연현은 1930년대를 ‘순수문학’의 형성 시기로 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문학사의 근/현대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박영희, 『현대 조선문학사 (외)』, 범우, 2008.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 수선사, 1948.
_____, 『조선신문학사조사: 현대편』, 백양당, 1949.
_____,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80.
임화, 『임화문학예술전집 2. 문학사』, 소명출판, 2009.

2. 논문

- 강용훈, 「한국 근대 문학사 연구의 형성 과정 - 당대 문학을 규정하는 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9, 우리어문학회, 2014. 5, 123~153쪽.
배개화, 「신문학사조사의 방법과 전략」, 『한국현대문학연구』 31, 한국현대문학회, 2010, 221~256쪽.
송병권, 「1940년대 스키 다케오의 식민지조선 정치경제 인식」, 『민족문화연구』 3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2, 403~436쪽.
신두원, 「계급문학, 민족문학, 세계문학 - 임화의 경우」,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연구소, 2002, 34~55쪽.
이도연, 「『신문학사』와 『한국문학사』의 서술 방법론 비교 연구」, 『한국문화연구』 20,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11, 7~31쪽.
장문석, 「임화의 참고문헌: 『개설 신문학사』에 나타난 임화의 ‘학술적 글쓰기’의 성격 규명을 위한 관건」, 『관악어문연구』 3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9, 409~451쪽.
전용호,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 연구」, 『우리어문연구』 23, 우리어문학회, 2004, 169~200쪽.

- _____, 『백철의 『신문학사조사』 개작에 관한 연구』, 『어문논집』 51, 민족어문학회, 2005, 291~302쪽.
- 최병구, 『한국문학사 서술의 경과: 제도와 이념에의 결박과 성찰: 현대문학사 서술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56, 민족문학사학회, 2014, 9~40쪽.
- 허병식,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의 정치적 무의식』, 『한국근대문학연구』 21, 한국근대문학회, 2010, 7~32쪽.

3. 단행본

-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솔출판사, 2003.
- 권보드래 외, 『문학사 이후의 문학사』, 푸른역사, 2013.
- 리디아 리우, 『언어횡단적 실천』, 소명출판, 2005.
- 문학과사상연구회, 『입화문학의 재인식』, 소명, 2004.
- 사카이 나오키 외, 『총력전하의 삶과 제도』, 소명출판, 2014.
- 오타베 다네히사, 『예술의 역설-근대미학의 성립』, 돌베개, 2011.
- 한림과학원 편, 『한국 근대 신어 사전』, 선인, 2010.

<Abstract>

Before and After of Libertation in the Studies on the History of the Korean Modern Literature

Kang, Yong-hoon

Studies on modern Korean literature history were published before and after the liberation, and they presented the ways to define the era of the Korean literature history. In addition, some concepts such as 'form', 'trends' and 'thoughts' were established to contemplate the aspects of changes in modern literature history. Through this, those who studied literature history continued to ask quest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ition and trends of the ag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western literature introduced through the Imperial Japan and colonial Chosun literature.

In particular, researchers of modern literature history focused on the period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in which western civilization was introduced after the opening of a port. Lim, Hwa defined this period as 'transition period' and tried to explore the boundary of 'old era and new era' and 'tradition and foreign culture' in <New literature history>. Use of the term of 'transition period' met the concept of 'form'. Lim, Hwa fundamentally examined how civil culture took root in the Chosun society through the concept of 'form'.

Lim, Hwa's critical minds were not substantially inherited in "investigation of Chosun new literature history" written by Baik,

Cheol and “Chosun modern literature history” written by Park, Young-hee after the liberation. Baik, Cheol replaced terms of ‘transition period’ and ‘form’ which Lim, Hwa used with ‘the time of enlightenment’ and ‘trends’. While Lim, Hwa tried to explore the grounds in which civil culture was formed in Chosun society, Baik, Cheol was concentrated to summarize and introduce multi-layered contents of foreign trends introduced in Chosun society.

In addition, Baik, Cheol claimed that modern Chosun literature started in 1923 when the proletarian movement was formed after he classified the period into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Baik, Cheol thought that the main trend was formed in Chosun new literature sharing the flow of global trends. In addition, he described that anxiety and awareness of crisis sprang up before and after 1932 and 1933 when a ‘main trend’ was lost. “Investigation of Chosun new literature history” was significant, because he described the detailed situations of literary world during the period from 1930s to the liberation.

On the other hand, Park, Young-hee comprehensively defined ‘Contemporary times of Chosun literature’ without using a term of ‘modern’. When Park, Young-hee defined ‘Contemporary times of Chosun literature’, he thought that aspects and situations of national ordeal using Korean education were important. Unlike Lim, Hwa and Baik, Cheol, Park, as Young-hee highlighted Korean language and national awareness, he did not deeply explore the effects of world trends and Japanese literary circles on Chosun literature. Instead, he highlighted the term of ‘thought’ in the process of description of literature history. He defined the term of ‘thought’ as the national

feeling which sprang together with political awakening of Korean people. In “Chosun modern literature history”, he excluded multi-layered areas which did not converge into ‘nation’ from the description of literature history rather than being focused on national emotion formed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crisis of the nation.

Key Words : Lim Hwa, Baik Cheol, Park Young-hee, the History of the Korean Modern Literature, Before and After of Libetration, form, trends, thoughts

■ 논문접수 : 2015년 3월 22일

■ 심사완료 : 2015년 4월 12일

■ 게재확정 : 2015년 4월 20일